행동분석·지원연구
Journal of Behavior Analysis and Support
2018, Vol. 5, No. 1, pp.105-128

자기결정 행동의 구성요소와 긍정심리학 이론에 기초한 성격 강점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갑상*(서산동문초)

<요 약>

이 연구는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의 변인 간 관계적 특성을 탐색하는데 연구에 목적을 둔다. 이 목적을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자기결정 행동의 구성요소와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 강점들을 연구하는 문헌들을 수집하고, 연구 설계, 대상의 특성, 중재 전략, 연구 결과,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 성격 강점의 변인별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자기결정 행동의 구성요소와 관련성을 보인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들 중에는 자기조절, 사회지능, 창의성 등으로 발견되었고, 그 성격 강점과 관련성이 보인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의 변인 간 관계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자기결정, 자기결정행동, 긍정심리학, 성격 강점

* 교신저자(k-j1028@hanmail.net)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 목적

미국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학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 2017)는 지적 장애를 발달기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의 제한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지적장애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거듭된 실패로 낮은 자기 효능감과 실패를 능력에 두는 귀인으로 인하여 학습화된 무기력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백은희, 2009). 즉, 삶의 다양한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 선호 및 능력보다 교사, 부모와 같은 타인의 선택과 결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숙향, 2009). 이러한 외부 의존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단지 주어진 대로 따르는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개인이 선호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은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지적장애 학생들 또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기주도 또는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이옥인, 백은희, 2007).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은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체가 자기 자신으로 외적인 영향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내재적인 성향(dispositional characteristics)이다 (Wehmeyer, 2015). Wehmeyer(2015)는 자기결정 이론에서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를 선택, 의사결정, 문제해결,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 자기관리, 자기옹호 및 리더쉽, 조정, 효능성 및 성과기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자기인식 및 자기이해로 제안하였다(이숙향, 2010).

이제까지 특수교육에서는 장애를 결핍이나 교정의 측면으로 보았으나(Wehmeyer, 2015), 최근에는, 점차 장애의 패러다임이 결핍의 관점에서 개인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되어감에 따라, 개인의 환경이나 상황을 조정하면 장애로 인한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AAIDD(2002)의 지적장애 정의에서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결핍의 패러다임에서 긍정적으로, 강점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Wehmeyer(2015)는 자기결정 연구의 역사적 과정을 논의 하고 다음 단계의 자기결정 연구 방향으로, 이러한 자기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 주도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강점 기반 중재 모형(strength-based model of support) 또는 강점 기반 접근(strength-based approach)을 제시하였다.

강점 기반 접근의 주요 목적과 특성은 성격 심리학의 한 부분인 긍정심리학과 맥락을 같이한다. 긍정 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벗어나 긍정적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의 행복과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분야이다(Seligman, 2011).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복과 기능 향상을 위해 인간의 '성격 강점'(character strength)을 발견하고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격 강점이란 동・서양의 철학과 역사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을 분석하여 발견

된 대표적인 성격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성격들로는 지혜(wisdom), 용기(courage), 자애(humanity), 정의(justice), 절제(temperance), 초월(transcendence)의 덕목 유형으로 구분된 성격들이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최근, 특수교육 분야에서 자기결정과 긍정심리학의 통합적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 Shogren (2013)은 긍정심리학과 장애에 대한 역사적 내용을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Shogren, Wehmeyer, Buchanan, 그리고 Lopez(2006)들은 약 30년간의 지적장애 연구에서 긍정심리학과 자기결정의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여 구성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결정과 긍정심리학의 주요 요인들 간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발견하였다. 즉, 자기결정 관련 문헌에서 자기조절, 동기, 자기 효능감, 자아실현과 같은 자기결정의 구성요소가 긍정심리학의 문헌들의 자율성, 자기조절, 심리적 역량인 동기, 효능감과 자아실현의 요인들과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은 긍정심리학의 주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Shogren, Wehmeyer, Palmer, 그리고 Forber-Pratt(2015)들은 자기결정 기능적 모형의 기초가 되는 원인주체이론에 대하여 재개념화한 내용들을 발표하였다. 자기결정의 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자기결정 기능적 모형의 근본적 구성요소에 대하여 긍정심리학의 개념을 통하여 재조명하였다. 원인주체이론에서 제시한 기존의 자기결정의 구성요소에 자발성과 행위의 작은 단위를 강조하는 개념을 추가하여 보다 확장하여 제시하였다. Niemiec와 Shogren(2017)들은 지적장애와 성격 강점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긍정심리학의 강점기반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 문헌연구에서는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강점과 검사도구와 중재방법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지적장애에 적용 가능한 검사도구와 중재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하지만, 지적장애에 적용 가능한 검사도구와 중재 방법에 대해서는 간략적으로 기술하고 검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부족하여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결정과 긍정심리학에 관련된 연구들은 초기 단계이고, 자기결정과 긍정심리학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이다. 이는 자기결정과 긍정심리학의 학문적 분야에서 공통적인 면들을 찾고 그 관련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결정의 주요 구성요소와 긍정심리학에서 주로 언급한 성격 강점에 대한 내용들 간에 관계성을 연구한 문헌들은 미흡하다. 자기결정의 요소들이 긍정심리학의 성격 요인과 일치한다면, 중재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분야의 요인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다 특정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의 변인의 특성을 밝히고, 두 변인의 관계적 특성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 분석을 통하여 자기결정행동 구성요소와 성격 강점 변인의 특성과 두 변인의 관계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에 나타나는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의 변인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둘째, 자기결정 행동과 성격 강점의 변인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Ⅱ. 연구 방법

1. 분석대상논문 선정

자기결정 행동의 변인과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 요인의 관계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으로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첫째, 200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출간된 국내외 학술저널로 제한한다. 2006년부터 분석한 이유는 Shogren, Wehmeyer, Buchanan, 그리고 Lopez들이 2006년까지 긍정심리학과 자기결정의 문헌들을 분석하여 발표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헌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만 4-18세 사이의 장애와 비장애의 유,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 검색어로 선택결정기술(choice-making), 의사결정기술(decision-making), 문제해결기술(problem-solving),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기술(goal-setting), 자기관리 및 조정기술(self-monitoring, self-observation, self-evaluation, self-reinforcement, self-instruction), 자기옹호(self-advocacy) 및 리더쉽 기술(leadership), 통제, 효능성 및 성과기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self-efficacy, performance expectation), 자기인식 및 자기이해(self-awarencess, self-knowledge)를 사용하였다.

넷째, 긍정심리학의 성격강점의 검색어로 지혜(wisdom), 용기(coruage), 자애(humanity), 정의(justice), 절제(temperance), 초월(transcendence), 창의성(creativity), 호기심(curiosity), 개방성(open-mindedness), 학구열(love of learning), 사랑(love), 친절성(kindness),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 용감성(bravery), 인내(persistence), 진실성(authenticity), 활력(vitality), 용서(forgiveness), 겸손(modesty), 신중성(purdence), 자기조절(self-regulation), 시민정신(citizenship), 공정성(fairness), 리더쉽(leadship), 감상력(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감사(gratitude), 낙관성(optimism), 유머감각(humor), 영성(spirituality)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들을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연구하는 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여섯째, 자기결정행동의 구성 변인과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들을 동시에 연구하는 대상 논문에서는 단일대상 실험연구, 집단설계실험연구, 상관분석연구를 분석대상논문으로 선정하였다.

2. 수집절차

위의 기준에 따라 대학도서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ERIC(Education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한국교육학술정보원와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 대상 논문들을 수집하였다.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성격 강점의 검색어가 논문 제목에 2가지 이상 동시에 나타나는 문헌들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국내 논문은 72편, 국외 논문은 139편으로 발견되었다.

자료선정과 분석을 위해 특수교육과 교수 1인과 박사과정 1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는 전문가 접근방법(committee approach; Burns, 1996)을 사용하여 심층적인 토의 및 의사교환을 하였다. 여러 차례의 전문가 토론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논의, 선정하였다. 즉,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성격 강점 간의 관계적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내용의 문헌인지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석대상 논문 선정 기준으로 변인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하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설계로 단일대상 실험설계, 집단실험설계, 상관분석연구들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분석 대상 논문으로 국내는 30편, 국외는 8편으로 선정되었다.

3. 분석자간 신뢰도

연구자가 분석논문을 일관성 있게 분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제2분석자가 논문을 분석하기 전에 분석 항목에 대한 개념들을 숙지하였다. 분석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총 문헌의 30%에 해당하는 38편 중 11편의 논문을 가지고 분석자가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분석자가 신뢰도는 두 분석자간 일치한 항목의 수와 불일치 한 항목의 수를 나누어 100을 곱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자가 신뢰도는 90.5%로 나타났다.

Ⅲ. 연구 결과

2006년까지 긍정심리학과 자기결정의 문헌들을 분석하여 발표한 Shogren, Wehmeyer, Buchanan, 그리고 Lopez들의 문헌 이후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출간된 국내외 학술저널들 중에서 만 4-18세 사이의 장애와 비장애 유,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긍정심리학의 성격강점들의 관계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 탐색한 결과를 토대로 자기결정행동

구성요소와 성격강점의 변인 간 구조분석을 위한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1. 자기결정행동 구성요소와 성격 강점의 변인

분석대상논문들을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성격 강점 변인 간에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1>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로 자기 효능감, 성과기대, 문제해결, 자기조정, 목표설정, 선택하기가 성격강점의 자기조절, 사회지능 및 창의성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이 많았다.

자기결정행동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결과 기대(outcome expectancy), 문제해결하기는 성격강점에서 자기조절과 창의성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되었고, 자기결정행동 구성요소인 자기조정하기와 관련된 성격 강점 관련 문헌들 중에서는 사회지능과 리더쉽이 가장 많았으며, 자기결정행동 구성요소인 목표설정하기와 선택하기, 의사결정하기는 성격 강점 관련 문헌들 중에서는 자기조절과 사회지능이 가장 많았다. 자기결정행동 구성요소인 자기이해 및 자기인식과 관련된 성격강점 관련 문헌에는 리더쉽이 있었다. 문헌분석을 통해 발견된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성격강점들의 각 변인들은 많이 나타난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표 1>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성격 강점 변인을 함께 연구한 논문의 편수

성격 강점 / 자기결정 행동의 구성요소	자기 조절	사회 지능	창의성	리더십	인내	낙관성	활력	계
효능성, 결과기대	6	1	1	1	1		1	11
문제해결하기	2	2	4					8
자기조정하기	1	2	1	2	1	1		8
목표설정하기	3	2						5
선택결정하기	1	2	1					4
의사결정하기		1						1
자기인식 · 자기이해				1				1
계	13	10	7	4	2	1	1	38

1) 자기결정행동 구성 요소

성격 강점과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 및 결과 기대는 자기조절과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목표설정이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과 함께 많이 연구되어졌다. 차이점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다양한 여러 성격 강점

변인들(창의성, 리더쉽, 인내)과 관련되어 폭넓게 연구된 반면, 목표설정은 자기조절과 사회지능과만 관련하여 연구되어졌다. 사회학습이론에서 자기 효능감과 결과기대는 동기를 대치하는 변인이기 때문에 자기조정학습에 주된 변인이다. 목표 설정 또한 현재의 성취수준과의 간극을 보여주는 동기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조정학습과 매우 관련이 높다(Schunk,)(백은희, 2009).

문제해결은 수단-목적의 문제해결 계열에 따라 행동을 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필요와 흥미를 만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의 수준과 기대하는 것의 간격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옥인, 백은희, 2007). 이러한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로서의 문제 해결하기는 강점행동의 변인인 창의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로서의 자기 조정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 행동 및 정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며 개인의 반응체계로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의 3요소가 포함된다(이옥인, 백은희, 2007). 자기 조정은 다양한 성격 강점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선택결정하기는 선호하는 것에 대해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이고 선호도를 명확히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이옥인, 백은희, 2007). 선택결정하기의 자기결정행동의 변인들이 포함된 문헌들에는 지능형 로봇 제니보(Genibo)을 이용한 주제자유선택활동 프로그램(이정순, 유구종, 김민경, 2012) 등이 주로 발견되었다. 자기결정행동으로서의 의사결정하기는 강점행동변인의 사회성과, 자기이해는 리더쉽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격강점의 변인들

자기결정행동의 변인들과 관련성을 보인 성격 강점들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자신의 다양한 감정, 욕구, 행동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Peterson, Seligman, 2004). 자기조절에 관련된 문헌들은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가장 많이 언급된 분야이기도 하다.

둘째, 사회성과 유사한 성격 강점의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동기와 감정을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잘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Peterson, Seligman, 2004). 사회지능과 관련된 문헌들에는 유아의 사회지능에 따라 자유선택활동(이영애와 엄정애, 2010) 등이 주로 발견되었다.

셋째, 창의성(creativity)은 어떤 일을 하면서 새롭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으로서 참신한 사고와 생산적인 행동방식을 말한다(Peterson, Seligman, 2004). 창의성에 관련된 문헌들로는 사회적 창의성(Gu, Hu, Ngwira, & Jing, 2014) 등이 주로 발견되었다.

넷째, 활력(vitality)은 활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삶과 일에 임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생기와 생동감을 느끼고 삶을 도전적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Peterson, Seligman, 2004).

다섯째, 인내(persistence)는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여 완성하는 능력을 말하며 난관에도 불구하

고 일련의 계획된 행동을 지속하거나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Peterson, Seligman, 2004). 인내의 성격 강점과 관련된 문헌들에는 초등학생의 끈기(임효진, 하혜숙, 황매향, 2016), 과학교육활동(Lavigne, Vallerand, & Miquelon, 2007) 등이 주로 발견되었다.

여섯째, 리더십(leadership)은 집단 활동을 조직화하고 그러한 활동이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능력으로 구성원을 고무시켜 좋은 관계를 창출해내고 사기를 진작시켜 각자의 일을 해내도록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Peterson, Seligman, 2004). 리더쉽과 관련된 문헌들로는 유아의 놀이활동(이채호, 2016) 등이 주로 발견되었다.

일곱째, 낙관성(optimism)은 최선을 예상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Peterson, Seligman, 2004). 낙관성에 관련된 문헌들로는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낙관성 조절(한창훈, 조영아, 2014) 등이 주로 발견되었다.

2. 자기결정행동 구성요소와 성격 강점의 관계

1) 실험연구에 나타난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성격 강점의 관계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의 문제해결기술이 성격 강점의 자기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는 임은주와 최승숙(2017)은 문제해결교수 기반의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학습장애 3명 학생에게 중재한 결과 탄력성과 사회성의 향상을 보였다. 탄력성의 하위요인은 긍정적 사고능력, 사회문제해결 능력, 자기조절 능력이다. 긍정적 사고능력의 향상은 자신의 장점과 감정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유발하고 개인의 사고를 확장시켜 사회적 자원을 만들어 내는 사회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자신감의 향상,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낙관적인 태도 및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타인과의 갈등을 사회적 용납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내용의 문제해결교수 중재를 통하여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었고 보았다. 또한 문제해결기술의 자기결정행동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사회성기술 향상을 보였다고 말한다. 이런 점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임은주, 최승숙, 2015). 강병재(2000)는 협력적 문제해결 수업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와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협력적 문제해결 수업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효과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협력적 문제해결 수업이 사회성의 증가 경향을 보였다.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의 문제해결기술이 성격 강점의 자기조절과 사회지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는 정재희(2006)은 대인문제해결훈련을 받은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대안적 해결사고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점은 실제 문제해결 기술능력 중에 문제해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많은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에 의의있는 변화가

<표 2> 실험연구에 나타난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성격 강점의 관계

연구자 (연도)	연구 설계	대상	자기결정 행동 구성요소	성격강점	연구문제	중재 전략	연구결과
이정순, 유구종, 김민경 (2012)	집단 실험 설계	만5세 유아 20명	선택하기	사회지능 자기조절	지능형로봇과 연계한 자유선택활동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지능형로봇과 연계한 자유선택하기활동 프로그램	내적 통제, 또래와의 상호작용, 성취동기, 호기심에서 유의미한 차이 보임. 긍정용어 사용 향상
이경화, 김광이 (2007)	집단 실험 설계	만5세 유아 16명	문제 해결하기	창의성	문제 상황이 내포된 동화책을 활용한 문제해결토의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그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문제나 갈등 상황이 내포된 동화책을 활용한 문제 해결토의활동 수업	언어영역의 창의성, 유창성, 독창성, 상상력 유의미한 차이 보임.
임은주, 최승숙 (2017)	단일 대상 설계	초5,6 학년 학습 장애 3명	문제 해결하기	사회지능 자기조절	문제해결교수 기반의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장애 학생의 탄력성과 사회성 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문제해결교수 기반의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긍정적 사고능력, 사회문제해결능력, 자기조절능력의 탄력성과 사회성 기술 향상.
강병재 (2000)	집단 실험 설계	초등 학생 36명	문제 해결하기	자기조절	협력적 문제해결 수업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협력적 문제 해결 수업설계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차이 보임.
정재희 (2006)	집단 실험 설계	초등 학생 20명 지적 장애	문제 해결하기	사회지능, 창의성	대인문제해결 훈련이 정신지체아동의 문제해결력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문제해결 전 기술과 필요한 기술 범주로 구성된 ICPS 프로그램	대안적 해결사고 능력 향상의 유의미한 차이 보임.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인 선택하기가 성격 강점의 사회지능과 자기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는 이정순, 유구종, 김민경(2012)은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지능형 로봇 제니보(Genibo)으로 상호작용성, 관계성, 이동성의 주요 기능을 갖춘 로봇을 여러 가지 주제의 자유선택활동 프로그램에서 놀이활동 교육자료로 유아에게 중재하였다.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하위 요인으로 내적 통제, 또래 상호작용, 성취동기, 호기심에서 유의성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났고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통하여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지능형 로봇을 이용한 자유선택활동 프로그램은 유아의 집중도, 흥미도, 친밀성 및 의사소통기술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로봇의 주요 기능인 감성기능(LED, LCD, 발화내용, 움직임)이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로봇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긍정적 지각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해줄 수 있는 정신상태 용어의 사용이 증가하여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지능형 로봇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더불어 자기결정 행동의 선택기술이 활용되는 선택활동의 경험이 성격 강점의 사회지능과 유사한 사회·정서의 하위요인인 내적 통제, 성취동기, 또래의 상호작용, 호기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인 문제해결하기가 성격 강점의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경우로 이경화와 김광이(2007)는 문제와 갈등상황이 내포된 동화책을 이용하여 문제해결 토의활동을 유아에게 적용한 결과 유아의 언어적 창의성과 그 하위요인인 유창성, 독창성, 상상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즉 동화책을 이용하여 확산적 질문을 통한 상호작용이 유아로 하여금 문제해결기술의 사고를 유발하게 하고 그 경험이 유아의 상호작용과 창의성에 효과를 보였다. 동화책을 이용한 문제해결 토의활동 속에서 창의성과 관련된 독창성과 상상력의 사고과정이 발생되므로 창의성이 계발되어진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볼 때, 실험연구에 있어서는 선택하기와 문제해결하기와 같은 자기결정의 구성요소를 독립변수인 전략으로 활용한 연구에서는, 성격강점으로 사회지능, 창의성, 및 자기조절이 종속변수로 많이 연구되었다.

2) 상관분석연구에 나타난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성격 강점의 관계

(1) 자기 효능감 및 결과 기대와 자기조절, 사회지능, 창의성

자기 효능감 및 성과기대의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자기조절의 성격 강점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탐색되었다. 박소희, 조민아(2013)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있어서 자율성을 지지하고 학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자녀는 긍정적 학업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자기결정성 동기와 인지적 자기조절학습 전략 활용을 향상시킨다. 즉 학습 목표나 방법, 규칙 등을 자녀가 자율성을 많이 발휘하도록 하고 적절한 칭찬과 강화를 제공하며 학업에 대한 내적 동기가 향상

되기 때문이다. 김아영, 차정은, 이다솜, 임인혜, 탁하얀, 송윤아(2008)들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초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적 효과를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가 학생의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양육태도는 학생의 자율성에 긍정적 향상을 보이고 학생의 자율성 향상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자율성과 자기조절으로 학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모와 교사의 학습관여가 학생의 자율성과 자기조절을 지지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혜주(2008)의 연구에서 지식추구, 지적성취, 지적 자극추구 동기와 같은 자기결정성과 자기조절 학습전략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지적 성취, 동일체, 지적자극추구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높을수록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인 자기조절 학습 전략을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 자신에게 동기 부여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활용하는 학습행동이 학습자 개인에게 가치있고 중요하다는 점을 학습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병언, 유경훈(2010)은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 간의 구조 분석한 결과 자기결정성 동기의 내적 동기가 자기조절학습의 인지조절, 행동조절, 동기조절의 영역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조절학습 전체는 자기결정성 동기의 내적 동기와 상관이 가장 높았고 외적 동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외재적 동기보다는 학업수행의 목표를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시키고 내적인 의미를 갖도록 유도하는 교수법이 구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기효능감의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사회지능의 성격 강점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탐색되었다. TOTAN(2014)은 학업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서적인 자아 효능감이 높을수록 과제 수행정확성, 또래 관계 그리고 자기조절의 사회적이고 정서적 학습 필요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효능감과 성과기대가 높을수록 과제수행과 또래관계와 상관이 사회적인 기술 습득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하게 가지게 되고 사회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효능감 및 성과기대의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창의성의 성격 강점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탐색되었다. 김청자(2006), 송혜경(2015)의 연구에서 자기결정성의 내재적 동기인 심리적 역량과 동일시 조절이 창의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제 자체에 대한 관심과 기쁨으로 행동하는 가장 자율적인 자기결정의 내재적 동기와 자신의 목표나 가치의 중요성으로 인해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내재적 동기와 달리 목적 달성에 치중하는 특성을 말한다. 박성익, 유경훈(2010)은 초등학생의 창의적 사고능력, 창의적 인성, 성취목표 동기, 자기결정성 동기간의 인과구조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결정성 동기의 내적동기인 동일시조절, 통합조절이 창의적 사고능력과 상관이 있고 창의적 인성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과 같은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활력의 성격 강점의 관계가 나타난 소영호(2015)의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자율성 지시는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활력을 높이고 학생의 지각된 자율성 지지는 조화열정과 강박열정과 더불어 경기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인내에 관련되어 Lavigne, Vallerand, &

Miquelon(2007)들은 과학교사가 학생들의 자율성에 대한 지원전략이 학생의 자율성과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과학교육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향상되고 참여에 대한 지속성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과학교육활동에 학생들의 선택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때 학생 스스로의 자아개념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목표설정하기와 자기조절, 사회지능

목표설정하기의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자기조절의 성격 강점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탐색되었다. 이소희(2010)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을 향상시켜 자기조절 학습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은 이 연구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와 유사한 학습동기로 보고 있다. 즉 자신의 능력을 발달하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학습행동과 방법을 달리 선택한다는 것이다. 양명희와 오종철(2006)은 성취목표이론에서 제안하는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라는 네 종류의 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 학습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숙달접근과 수행접근이 회피경향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회피경향성이 더 지향한다고 보았다. 숙달접근과 수행접근의 목표접근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이 향상되었다고 보았다. 즉 내재적 동기로 인하여 도전적 과제를 선택하고 성취하려는 숙달접근의 목표경향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려는 목표경향성도 자기조절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그래서 숙달목적과 수행목적을 함께 지향할 때 최적의 자기조절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런 점은 학생들에게 과제의 숙달 지향적 동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환경과 설계도 중재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문병상(2011)의 연구에서 내·외재적 미래 목표 설정이 자기조절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과제도구성 지각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유익한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적 지원에서 학생의 내재적 미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할 필요성을 지지해 준다. Miller와 Brickman(2004)도 미래 목표, 과제 도구성 지각, 그리고 근접 과제 지향 자기조절 변인간의 관계 모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현재의 과제 활동을 유의미하게 지각하여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은 자기결정 학습모형의 중재 과정에서 목표설정 단계가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활용해야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학생에게 가지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김영숙, 조한익(2014)은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 학습의 하위요인별 상관자료를 가지고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들로는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이고 자기조절학습의 하위요인들로는 인지조절, 메타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로 나누었다. 하위요인별 상관 분석의 효과크기 결과는 숙달접근 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의 효과크기가 가장 높았고 수행접근, 수행회피, 숙달회피 순으로 나타났다. 박선영, 설경옥, 김유나(2017)들

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성취 및 외현화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취목표지향성의 숙달접근은 친사회성에 직접적인 정적 효과를 미치며 친사회성이 숙달접근에서 학업 성취 및 외현화 문제의 높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숙달접근이 높을수록 친사회성이 높았고 학업성취와 외현화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이 숙달목표를 추구하는 학생들은 사회정서발달의 결과로서 친사회성이 발달하고 이는 학업성취와 외현화의 발달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동기유형에 따라 학업에 임하는 태도와 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며 자기조절능력을 통해 발달하는 긍정적인 행동인 친사회성의 발현되어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이 친사회성을 매개로 학업성취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는 자신의 행동이나 반응을 환경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의 발달과 자기조절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송지은, 이은주(2015)는 자율적 동기와 내재목표가 높을수록 수업참여와 자기조절학습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내재적 동기가 수어참여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며 자율적 동기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아지고 학업지연행동은 낮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학업지속성도 높았다고 하였다.

목표설정하기의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사회지능의 성격 강점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탐색되었다. 박선영, 설경옥, 김유나(2017)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성취 및 외현화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취목표지향성의 숙달접근은 친사회성에 직접적인 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의 숙달목표를 추구하는 학생들은 사회정서발달의 결과로서 친사회성이 발달하고 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며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자기조절능력을 통해 친사회성의 발현되어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양하련, 이은주(2014)은 청소년의 사회적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숙달목표를 추구할수록 또래 관계에서 친밀감을 경험하는 반면 사회적 수행회피목표를 추구할수록 친밀감을 감소하고 고립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회피를 추구하는 학생들은 부정적 평가를 피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며 또래관계를 맺을 기회를 회피하기 때문에 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수행접근목표를 추구할수록 친밀감뿐만 아니라 고립감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접근목표를 추구할수록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 상황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을 선택하며 이로 인해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고립감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표설정하기의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인내의 성격 강점의 관계가 나타난 문헌도 있는데, 임효진, 하혜숙, 황매향(2016)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끈기(인내)는 자기효능감,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에 정적인 예측력을 가지고 있고, 성취목표 중에서 긍정적인 목표인 숙달접근목표와 수행접근목표와 관련된다고 확인하였다.

(3) 선택결정하기와 사회지능, 창의성

선택결정하기의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사회지능의 성격 강점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탐색되었다. 이영애와 엄정애(2010)는 유아의 사회지능에 따라 자유선택활동과 이야기나누기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행동과 정의적 행동의 차이와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유아의 사회지능에 따른 전체 인지적 행동은 사회지능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인지적 행동 하위 범주별로 살펴보면, 사회지능이 높은 집단에서는 지식 말하기, 사회지능이 낮은 집단에서는 사물명명하기가 많이 나타났다. 전체 정의적 행동은 사회지능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사회지능이 낮은 집단에서 많이 나타난 정의적 행동은 없었으나 사회지능이 높은 집단에서는 듣기, 동의하지 않기와 적극적으로 반응하기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지능이 높을수록 자기결정행동 중 자기옹호의 활용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성 기술의 발달은 자기옹호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선택결정하기의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창의성의 성격 강점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탐색되었다. Gu, Hu, Ngwira, 그리고 Jing(2014)은 자유로운 과제 선택의 자율성을 제공되는 교육환경에서 창의성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창의성도 향상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창의성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문제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성향을 말한다. 과제를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경험은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고 창의성이 발달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회적 창의성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였다. 그 과제가 학생의 실제 생활과 관련 깊고 자신에게 중요할수록 그 과제를 수행하려고 동기가 강해지고 과제수행 이후 즐거움을 갖는다고 하였다.

(4) 문제해결하기와 창의성

문제해결하기의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창의성의 성격 강점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탐색되었다. Fessakis와 Lappas(2013)는 문제해결 형태의 컴퓨터 게임 활동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에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난다고 하였다. 문제해결 형태의 컴퓨터 게임 활동은 교사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행하는 활동이다. 교사와의 상호작용에는 게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방법에 대한 사고과정에 대한 격려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적절한 강화활동들이 포함된 것이다. Kwon, Lee 와 Lee(2016)들은 학생들이 조작활동을 하고 팀 중심의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특정 주제를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와 특정 주제 학습에 선호하는 태도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고 한다. Martz와 Hughes(2016)의 연구에서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 중에는 문제해결기술이 주로 언급되었다.

(5) 자기조정과 사회지능, 리더십, 낙관성

자기조정하기의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가 사회지능의 성격 강점과 관계가 다음과 같이 탐색되었다. 장윤희와 문혁준(2011)의 연구에서 유아의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이 또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놀이행동의 하위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놀이상호작용은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놀이단절과 놀이방해는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놀이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변인으로 주도성, 사교성, 민감성, 행동억제로 나타났다 이는 주도적이고 사교성 있으며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잘하는 유아일수록 또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도적이고 정서적이고 덜 민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유아일수록 놀이 방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정하기의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리더십의 성격 강점의 관계가 나타난 문헌도 있는데, 이연실(2011)은 유아의 놀이성과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유아들이 놀이할 때 또래들과 협동적이며 사회적인 자발성을 보이고 주도적이며 독창적인 인지적 자발성 놀이를 할수록 유아들의 주도적이고 사교적인 리더십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유아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주어 주도성과 사교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기 조절적 개념은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다시 유아의 주도성, 사교성의 교량적 역할을 높인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발성은 자기결정을 통해 주도성에 직·간접적 효과를 나타내 부분매개효과를 지닌다고 하였다. 유아들이 놀이할 때 친구들과 쉽게 반응하고 협동적이며 사회적인 자발성을 보이며 놀이할수록 유아들의 주도적인 리더십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가 자신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동인 자기결정능력에도 영향을 주어 주도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행동억제와 정서성이 놀이성과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채호(2016)는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또래 유능성, 자기조절 및 놀이 유형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또래 유능성의 하위요인인 사회성이 가장 많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또래 유능성의 하위요인인 주도성, 운동놀이, 자기조절의 하위요인인 자기통제 순으로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다.

자기조정하기의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낙관성의 성격 강점의 관계가 나타난 한창훈과 조영아(2014)연구는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낙관성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목표수행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자기조절양식이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를 조절하는 것이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조절양식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낙관성은 자기조절양식과

<표 3> 상관분석연구에 나타난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성격 강점의 관계

연구자 (연도)	대상	자기결정행동 구성요소	성격강점	연구문제	연구결과
이영애, 엄정애 (2010)	만 4세 유아 40명	선택하기	사회지능	유아의 사회지능에 따라 자유선택활동과 이야기나누기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행동과 정의적 행동의 차이와 관계는 어떠한가?	자유선택활동의 선택하기와 사회지능의 자기옹호와 상관관계가 높음.
박선영, 설경옥, 김유나 (2017)	중·고등 학생 260명	목표 설정하기	사회지능, 자기조절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성취 및 외현화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숙달접근의 성취목표지향성이 사회정서발달 과 자기조절능력과 상관관계가 있음.
양명희, 오종철 (2006)	중·고등 학생 4649명	목표 설정하기	자기조절	성취목표이론의 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 학습과정 상관 분석은 어떠한가?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이 상관관계가 있음.
박소희, 조민아 (2013)	중·고등 학생 500명	자율성 지지	자기조절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자녀의 학업 자아개념과 인지적 자기조절학습 전략 활용 분석은 어떠한가?	자율성과 자기조절학습 전략 활용 증가와 학업의 내적 동기와 상관관계가 있음.
이혜주 (2008)	중·고등 학생 123명	자기결정 동기	자기조절	지식추구, 지적성취, 지적 자극추구 동기와 같은 자기결정성과 자기조절 학습전략과 정적 상관 분석은 어떠한가?	자기결정적 동기와 자기조절 학습 전략활용과 상관관계가 있음.
최병언, 유경훈 (2010)	초등 학생 245명	자기결정 동기	자기조절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 간의 구조분석은 어떠한가?	자기결정성 동기와 자기조절학습의 인지조절, 행동조절, 동기조절의 영역과 정적 상관
김영숙, 조한익 (2014)	중·고등 학생	목표 설정하기	자기조절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 학습의 하위요인별 상관자료 효과크기 분석은 어떠한가?	숙달접근 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과 상관이 높음.
양하련, 이은주 (2014)	중·고등 학생 324명	목표 설정하기	사회지능	청소년의 사회적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적 관계는 어떠한가?	사회적 수행접근목표 추구와 수행접근목표 추구와 친사회적 행동과 상관 있음.
Gu, Hu, Ngwira, Jing (2014)	중·고등 학생	자율성과 선택하기	창의성	자유로운 과제 선택의 자율성과 창의성 상관분석은 어떠한가?	내재적 동기와 사회적 창의성과 상관 있음.

<표 3> 상관분석연구에 나타난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성격 강점의 관계 (계속)

연구자 (연도)	대상	자기결정행동 구성요소	성격강점	연구문제	연구결과
장윤희, 문혁준 (2011)	유아 336명	자기 조정하기	사회지능	유아의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이 또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놀이상호작용의 자기조정과 주도성, 사교성, 민감성, 행동억제와 상관 있음.
TOTAN (2014)	중·고등 학생	자기 효능감	사회지능, 자기조절	자아 효능감과 과제수행과의 상관분석은 어떠한가?	학업적이고 사회적 자아효능감과 사회적인 기술습득과 자기조절과 상관있음.
Fessakis, Lappas (2013)	중·고등 학생	문제 해결하기	창의성	문제해결 형태의 컴퓨터 게임 활동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문제해결 형태의 컴퓨터 게임 활동 과 창의성에 유의미한 변화와 상관 있음.
Kwon, Lee, Lee (2016)	중·고등 학생	문제 해결하기	창의성	팀 중심의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특정 주제 학습동기와 선호와 창의성과 상관있음.
문병상 (2011)	중·고등 학생 600명	목표 설정하기	자기조절	내·외재적 미래 목표 설정이 자기조절 학습전략 상관분석은 어떠한가?	내적목표설정하기와 자기조절 학습전략과 과제도구성 지각과 상관 있음.
Miller, Brickman (2004)	중·고등 학생	목표 설정하기	자기조절	미래 목표, 과제 도구성 지각, 근접 과제 지향 자기조절 변인간의 관계 모형에서 미래 목표를 설정과 과제 활동과 자기조절학습전략 상관분석은 어떠한가?	목표설정하기와 자기조절 학습전략활용과 상관있음.
이소희 (2010)	초등 학생	자율성 지지	자기조절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행동에 미치는 관계 분석은 어떠한가?	자율성와 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행동과 상관이 있음.
김아영, 차정은, 이다솜, 임인혜, 탁하얀, 송윤아 (2008)	4,5,6 학년 초등 학생 1,375명	자율성 지지	자기조절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초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상관분석은 어떠한가?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행동과 상관있음.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 양식이 낙관성과 상호작용하여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이 미치며 낙관성의 수준에 따라 자기조절 양식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6) 자기이해와 자기조절

자기이해의 자기결정행동의 변인과 자기조절의 성격 강점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탐색되었다. 이수진, 이수정, 양은희(2016)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업적 자아개념과 자율성, 인지적, 행동적 자기조절학습전략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업적 자아개념과 자율성이 자기조절학습 전력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율성에 대한 지각이 높아지고 행동적 자기조절학습전략들의 활용이 증가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요약하면, 선택, 목표설정, 자율성, 자기결정동기, 자기효능감, 문제해결, 자기조정 등 다양한 자기결정의 구성요소들이 성격강점 가운데 사회지능, 자기조절, 창의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요약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출간된 국내외 학술저널들 중에서 만 4-18세 사이의 장애와 비장애 유,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긍정심리학의 성격강점들의 관계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탐색한 결과를 토대로 자기결정행동 구성요소와 성격강점의 변인 간 구조분석을 위한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한다면,

첫째,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관계성이 주로 언급된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들로는 사회지능, 자기조절, 창의성, 활력, 인내, 리더십, 낙관성 등이었다. 사회지능의 성격 강점과 관계를 보인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로는 선택하기, 목표설정하기, 문제해결하기, 자기 조정하기, 자기효능감 등이었다. 자기조절의 성격 강점과 관계를 보인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로는 자기조정하기, 자기결정성 동기, 자율성 지지, 목표설정하기, 문제해결하기, 자기이해하기 등이다. 창의성과 관계를 보인 자기결정 행동이 구성요소로는 선택하기, 문제해결하기, 내재적 동기인 심리적 역량 등이었다. 활력, 인내, 리더십, 낙관성의 성격 강점들과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 자율성, 내재적 동기의 심리적 역량, 자기조정하기가 관련하여 연구되어왔다. 사회지능, 자기조절, 창의성, 활력, 인내, 리더십, 낙관성의 성격 강점과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로 선택하기, 목표설정하기, 문제해결하기, 자기조정하기, 동기와 자기효능감과 자율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성격 강점간의 관계적 특성을 파악을 위해 대상논문들이 주로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문헌을 분석하였다. 후속연구는 긍

정심리학의 성격 강점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들에서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를 추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선택, 의사소통하기, 목표설정하기, 문제해결하기, 자기효능감 등의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가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들과 관계가 보이는 점들을 탐색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관계성을 보이는 긍정심리학의 24가지 성격 강점들 중에 7가지 정도밖에 탐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의 변인 간 관계를 요인별로 연결하는 수준에서 탐색하고 요인별로 인과 회로분석과 같은 구조분석을 통해 심층적인 탐색을 하지 않았다. 성격 강점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들 중에 특정 요인과 성격의 변인의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의 변인 간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 문헌들 중에서 실험연구의 중재 효과크기를 통계적으로 규명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는 성격 강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가 포함된 중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상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는 학령기 학생 중 장애와 비장애 학생들이 혼합되어 장애학생의 자기결정과 성격 강점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는 장애 학생의 자기결정과 성격 강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성격 강점들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문헌들과 이론적 내용을 다룬 논문들이 대다수였으며 실험연구들은 매우 미비하였다.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중재를 장애 학생이나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성격 강점의 변화에 미치는 실험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들 중에 선택하기, 문제해결하기, 목표설정하기 등이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들 중에 여러 성격들과 공통적으로 관계성을 보이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들 중에 선택하기, 문제해결하기, 목표설정하기 등 중에 어느 구성요소가 성격 강점들 중에 어느 성격과 보다 깊은 관계를 보이고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보다 인과회로분석과 같은 심층적인 구조 분석을 요하는 연구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들의 변인 간의 구조분석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의 변인 간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서, 또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높은 관련성으로 인하여 앞으로 지적장애학생의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활용하여, 성격강점 또한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결정행동의 구성요소와 성격 강점의 변인별 인과회로분석을 통하여 관계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병재 (2000). 협력적 문제해결 수업이 초등학교 자연과 학업성취와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15, 69-91.

김대룡 (2012). 발달장애학생의 진로태도와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및 대인관계기술 간의 상관관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3), 79-104.

김영숙, 조한익 (2014).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학연구, 52(3), 147-174.

김지영 (2014).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문제행동 중재 메타분석: 단일 대상 실험 연구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6(3), 47-67.

김청자 (2006). 자기결정성 동기유형과 창의적 인성 요인과의 관계 연구. 교육과학연구, 37(3), 237-256.

김아영, 차정은, 이다솜, 임인혜, 탁하얀, 송윤아 (2008).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초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 동기의 매개효과. 한국교육, 35(4), 3-24.

남경욱, 신현기 (2008). 인지적 장애를 지닌 아동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중재에 대한 메타분석 - 단일대상연구를 중심으로 -. 특수교육학연구, 42(4), 193-212.

문병상 (2011). 내·외재적 미래 목표, 과제도구성 지각과 자기조절학습전략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5(2), 219-234.

박선영, 설경옥, 김유나 (2017). 남자 청소년의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성취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1), 139-157.

박성익, 유경훈 (2010). 초등학생의 창의적 사고능력, 창의적 인성, 성취목표 동기, 자기결정성 동기 간의 인과구조 분석. 교육심리연구, 24(3), 733-756.

박소희, 조민아 (2013).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행동과 자기결정성 동기, 학업 자아개념, 인지적 자기조절학습전략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10), 263-289.

백은희(2009). 정신지체, 서울: 교육과학사

소영호 (2015).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활력, 열정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2, 575-586.

송지은, 이은주 (2015).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동기와 목표내용 프로파일: 수업참여와 자기조절학습의 차이. 교육학연구, 53(4), 35-55.

송혜경 (2015). 청각장애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와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 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연구, 6(1), 39-54.

양명희, 오종철 (2006). 2*2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과의 관련성 검토. 교육심리연구, 20(3), 745-764.

양하련, 이은주 (2014). 청소년의 사회적 성취목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 친사회성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2(1), 235-260.

유경훈 (2006).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창의적 사고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6(1), 229-240.

유경훈 (2009). 내・왜재동기, 자기결정성 동기가 창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9(2), 69-88.

이정순, 유구종, 김민경 (2012). 유아교육기관 지능형 로봇 활용 자유선택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7(3), 111-132.

이경화, 김광이 (2007). 창작동화를 활용한 문제해결 토의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3), 627-644.

이소희 (2010). 부모의 학업지원이 지능에 대한 변화신념과 성취목표지향성을 매개로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관계 구조 모형 검증. 청소년학연구, 17(10), 77-103.

이수진, 이수정, 양은희 (2016). 청소년의 학업적 자아개념과 자율성, 인지적, 행동적 자기조절학습전략 간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37(1), 79-106.

이숙향 (2009).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기결정에 대한 이해 및 현장적용을 위한 고찰: 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및 영향 요인에 관한 국내외 문헌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0(1), 1-32.

이숙향 역 (2010). 발달장애 학생의 자기결정 증진 전략. 서울: 학지사.

이연실 (2011). 유아의 놀이성과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7(2), 101-134.

이영애, 엄정애 (2010). 유아의 사회지능에 따른 인지적 행동과 정의적 행동 차이 분석: 자유선택활동과 이야기나누기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0(3), 263-286.

이옥인, 박은영, 신인수 (2011). 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 메타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7), 101-121.

이옥인, 백은희 (2007). 정신지체 학생의 일반 교육과정 접근을 위한 자기결정 학습모형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42(1), 51-75.

이채호 (2016). 유아의 또래 유능성, 자기조절 및 놀이유형이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5(4), 103-119.

이혜주 (2008). 아동의 자기조절 학습전략과 관련이 있는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 분석. 아동학회지, 29(3), 273-288.

임은주, 최승숙 (2015). 초등학교 일반아동과 학습부진아동의 탄력성 연구. 학습장애연구, 12(1), 47-68.

임은주, 최승숙 (2017). 문제해결교수 기반의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장애

학생의 탄력성과 사회성 기술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52(1), 99-119.

임효진, 하혜숙, 황매향 (2016). 초등학생의 끈기(Grit),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학업적 자기조절의 구조적 관계. 교육과학연구, 47(3), 43-65.

장윤희, 문혁준 (2011). 유아의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이 또래 놀이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73-87.

정재희 (2006). 대인문제해결 훈련이 정신지체아동의 문제해결력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발달장애연구, 10(2), 109-122.

최병언, 유경훈 (2010).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 간의 구조분석. 교육문화연구, 16(3), 183-203.

Fessakis G. & Lappas D. (2013). Cultivating preschoolers creativity using guided interaction with problem solving computer games, *In C. Carvallo and P. Escudeiro (eds.), Proceedings of the 7th European Conference on Games Based Learning, 2,* 763-770.

Gu, C., Hu, Y. B., Ngwira, F. F., & Jing, Z. (2014). The effect of general creative personality and freedom of task choice on adolescents' social creativity.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50*(2), 132-149.

Kwon, H., Lee, E., & Lee, D. (2016). Meta-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invetion education in south korea: Creativity, attitude, and tendency for problem solving. *Journal of Baltic Science Education, 15*(1), 48-57.

Lavigne, G. L., Vallerand, R. J., & Miquelon, P. (2007). A motivational model of persistence in science education: A self-determinaion theory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2*(3), 351-369.

Martz, B. & Hughes, J. (2016). Developing a creativity and problem solving course in suport of the information systems curriculum. *Journal of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12*(1), 27-36.

Miller, R. B., & Brickman, S. J. (2004). A model of future oriented motivation and self regul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 9-33.

Niemiec, R. M. & Shogren, K. A. (2017). Character strengths and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A strengths-based approach from positive psychology. *Education and Training in Autism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52*(1), 13-25.

Peterson, L. D., Young, K. R., Salzberg, C. L., West, R. P., & Hill, M. (2006). Using self-management procedures to improve classroom social skills in multiple general education settings.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29*(1), 1-21.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classification and handbook.* New York and Washington, DC: Oxford Univertiy Press an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hogren, K. A. (2013). Positive psychology and disability: A historical analysis In M. L. Wehmeyer(Ed.), *The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and disability* (pp. 19-3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hogren, K. A., Wehmeyer, M. L., Buchanan, C. L., & Lopez, S. J. (2006). The application of positive psychology and self-determination to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y: A content analysis of 30 years of literature. *Research &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31*(4), 338-345.

Shogren, K. A., Wehmeyer, M. L., Palmer, S. B., & Forber-Pratt. A. J. (2015). Causal Agency theory: Reconceptualizaion a functional model of self-determin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Autism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50*(3), 251-263.

Seligman, M. E. P.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Free Press, New York, NY.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Scruggs, T. E., & Mastropieri. M. A. (2001). How to summarize single-participant research: Ideas and applications. *Exceptionality, 9*(4), 227-244.

Totan, T. (2014). The canonical effect of task articulation, peer relations, and self-regulation base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needs to fields of self-efficacy. *Education and Science, 39*(171), 331-343.

Wehmeyer, M. L. (2014). *The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and disabi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ehmeyer, M. L. (2015). Framing the future: self-determination.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36*, 20-23.

Abstract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Elements of Self-Determination Behavior and Character Strengths of Positive Psychology

Kim, Gab-S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mponents of self-determination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of character strengths of positive psychology,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nents of self-determination behavior and the variables of character strength of positive psychology. For this purpose, from 2006 to the present, researcher collected the literature on the components of self-determination behavior and character strengths of positive psychology, and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intervention strategy, research results, the components of self-determination behavior, and character strength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ositive psychological character strengths which are related to the components of self-determination behavior were found by self-regulation, social intelligence, creativity, and explored the components of self-determination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er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nents of self-determination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of character strengths of positive psychology

Keywords: self-determination, self-determination behavior, positive psychology, character strength

게재 신청일 : 2018. 02. 28
수정 제출일 : 2018. 04. 28
게재 확정일 : 2018. 04. 29

* 김갑상(교신저자): 서산동문초등학교 특수교사(k-j1028@hanmail.net)